

하타다 다카시와 ‘전후 조선사학’의 가능성

박 준 형*

[초 록]

이 글은 하타다 다카시의 조선사학을 일본의 전후 공간이라는 콘텍스트 속에서 재조명한 것이다.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에 하타다 다카시는 전후 최초의 한국사 통사인 『조선사』를 내놓았다. 이 책의 서문에서 하타다는 전전의 조선사학을 인간 부재의 역사라고 비판하고, 조선민족을 주체로 한 새로운 역사서술을 주창했다. 이는 가해책임의 망각 위에 성립해 있던 전후 일본사회에 국경 밖 타자와의 대면을 촉구하는 목소리이기도 했다. 나아가 하타다는 일본인의 왜곡된 조선관이 야말로 그 실현을 가로막는 근본 원인이라고 보고, 그러한 인식의 기원까지 거슬러 올라가 학문과 권력 간의 유착관계를 폭로하였다. 동시에 그는 권력과 분리된 순수 학문의 존재 가능성에도 의구심을 품었다. 종래 연구자들은 학문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학문 및 자신으로부터 사상까지 소거했으나, 사상 없는 학문은 오히려 권력과 무책임하게 결합해 갔다. 이에 하타다는 학문과 사상의 통일을 주장했다. 연구자들의

* 서울시립대학교 국사학과 조교수

주제어: 하타다 다카시, 조선사학, ‘전후’ 일본, 학문의 순수성, 학문과 사상의 통일
Hatada Takashi, Studies of Korean History, “Postwar” Japan, Academic Purity, Unification between Thought and Academics

현실사회 복귀와 사회적 책무의 실천을 통해서만 총체적 미래에 대한 전망이 가능할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조선민족’을 역사 서술의 주체로 내세운 하타다의 전후 조선사학은 배타적 내셔널리즘과의 혼동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 가해자인 하타다와 피해자인 조선인 사이의 공감 가능성도 계속해서 의심을 받았다. 그러나 역사인식의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하타다의 전후 조선사학도 사후적인 평가를 넘어선 다시 읽기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역사가의 신체성을 받아들이고 스스로를 대상화하는 과정을 통해서야 하타다의 가능성도 재발견될 수 있을 것이다.

1. 머리말: 1951년, 식민지 조선과의 재회

한반도에서 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일본의 역사학자 하타다 다카시는 『조선사』라는 한국사 개설서를 세상에 내놓았다. 하타다는 1908년 11월 7일 한국 마산에서 태어난 재조일본인 2세였다. 그로부터 2년 뒤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한 조선의 땅에서 성장한 그는 부산에서 중학교를 졸업한 이후로는 식민지 모국인 일본에서 학업을 쌓고 연구활동을 이어갔다. 게다가 1940년부터는 다시 중국으로 건너가 남만주철도주식회사 등에서 다양한 이력을 더하였다.¹⁾ 패전 후에도 3년이 지나고서야 일본에

1) 하타다는 마산소학교와 부산중학교를 거쳐 규슈의 제5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928년에 도쿄제국대학 문학부 동양사학과에 입학했다. 대학 졸업 이듬해인 1932년에는 동양사연구실에서 부수(副手)를 하다가 이듬해부터는 만몽문화연구소 연구원까지 겸하였다. 1939년에는 동방문화연구원 도쿄연구소 연구원, 1940년부터는 남만주철도주식회사 북지경제조사소 조사원이 되어 중국의 농촌실태조사에 참가하였다. 1944년에 북지개발회사 조사국으로 자리를 옮겼다가, 패전 후인 1946년에는 중화민국정부에 유용(留用)되어 국제문제연구소 연구원으로 복무하였다. 1948년 일본으로 돌아온 그는 1950년에 도쿄도립대학 인문학부 교수가 되었다. 이상 하타다의 이력은 旗田巍先生追悼集刊行會(1995), 『追悼 旗田巍先生』, 東京: Pワード의年譜 참고.

돌아온 그에게 한반도의 전쟁 상황은 그에 얽힌 오랜 과거를 떠올리게 했을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일깨움의 결과로서 『조선사』 또한 탄생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바꾸어 말하면 『조선사』는 하타다가 식민지 조선과 재회하는 하나의 방식이었다.

그런데 그는 마치 그 만남을 어렵게 만들려는 듯이 일본 열도와 한반도 사이에 깊은 단절의 골을 설정하고자 했다. 왜냐하면 “조선사는 외국의 역사”라는 테제를 통해서야 종래의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하던 논리들, 예컨대 ‘일선동조론’(日鮮同祖論)과 같은 허구적 논리의 해체가 가능해지기 때문이었다.²⁾ 그러나 조선사를 가리켜 단순한 외국사가 아니라 “관계가 깊은 외국사”라 하고,³⁾ 나아가 “지금 고난의 철화에 휩싸인 조선인의 고뇌를 자신의 고뇌로 삼는 것이 조선사연구의 기점”이라고 했을 때,⁴⁾ 그가 파 놓은 골은 다시금 극복해야 할 대상이 되고 만다.

그렇다면 그는 어떤 방법을 통해 것처럼 깊게 패인 골을 메우고자 했을까. 그리고 그 골을 메우면 메울수록 깊어지는 그의 내적인 골, 다시 말해서 자신 또한 한 명의 생산 주체로서 전전의 학문체계에 가담하기도 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해명하려 했을까.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질문들을 실마리로 삼아 하타다 다카시의 전후 조선사학을 재조명하고자 한다. 이때 다음과 같은 접근 방식을 취할 것이다.

첫째, 하타다의 전후 조선사학을 전후 일본이라는 맥락 위에서 파악할 것이다. 유일한 하타다 연구서인 고길희의 『하타다 다카시』는 전전-전후라는 통시적 접근의 전형을 보여준다.⁵⁾ 이 책에서는 하타다의 생애를 다

2) 旗田巍(1976), 「朝鮮史學を貫いたもの」, 『アジア』 1976년 8·9월호 합병호, p. 260.

3) 旗田巍(1983), 「朝鮮史を學ぶために」, 『朝鮮と日本人』, 東京: 勁草書房, p. 2.

4) 旗田巍(1951), 『朝鮮史』, 東京: 岩波書店, p. 5.

5) 한국에서 간행된 고길희의 『하타다 다카시』(지식산업사, 2005)는 2001년에 제출한 박사논문 「旗田巍における『植民意識克服』と『アイデンティティ統合』—植民地朝鮮と戦後日本を生きた一知識人の思想形成に関する研究」를 고쳐 쓴 것이다. 일본에서는 본서에 앞서 2001년 11월에 ‘<在朝日本人二世>のアイデンティティ形

음의 네 시기, 즉 ① 원체험기(1908~1948), ② 전전 조선사학 비판기(1948~1965), ③ 일본인의 조선관 비판기(1965~1972), ④ 재조일본인 2세로서의 갈등기(1972~1994)로 구분했다.⁶⁾ ①은 하타다가 일제의 대륙침략을 학문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장래에 ‘청산해야 할 빛’을 지게 되는 시기이며, ②, ③, ④는 그 빛을 청산해 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원죄의 형성(①)과 속죄의 노력(②, ③, ④)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자기구도적 이야기 구성은 전전 역사학에 대한 비판과 함께 자기반성을 거듭해 온 하타다의 논의를 이해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된다.

그러나 하타다의 ‘죄’ 성립여부를 두고 하타다와 저자 사이에 입장 차이가 발생할 경우, 저자는 해당 사안에 대한 하타다의 죄의식 부재를 그대로 한계로서 규정했을 뿐 그 이유에 대해서는 물음을 이어가지 않았다.⁷⁾ 또한 ‘전후 조선사학’의 재구성 경위를 오로지 하타다라는 개인의 경험과 정체성 문제로 환원시킴으로써, 정작 ‘전후 조선사학’을 구성하는 내적 논리와 그것이 당대에 서 있던 위치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하타다에 대한 평가는 현재적 잣대에 의거한 단죄에 그쳐서는 안 될 것이며, 양심적인 일개인으로서가 아니라 ‘양심 부족’⁸⁾의 전후 공간 속에서 이루어져야 마땅하다.

둘째, 하타다의 ‘전후 조선사학’을 평가하는 현재의 맥락 또한 고려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만선사’에 대한 관심 증가와 함께, 일찍이 그를 날카롭게 비판했던 하타다에 대한 일본학계의 재평가 시도가 있

成—旗田巍と朝鮮・日本’이라는 제목으로 간행되었다.

6) 고길희(2005), 『하타다 다카시』, 지식산업사, p. 18.

7) 위의 책, p. 282.

8) 다케우치 요시미는 패전 직후 내셔널리즘과의 대결을 회피하는 심리에는 전쟁책임에 대한 자각 부족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그를 ‘양심 부족’이라 지칭하였다(나카노 도시오(2013), 「‘전후 일본’에 저항하는 전후사상」, 『‘전후’의 탄생—일본, 그리고 ‘조선’이라는 경계—』(성공회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기획/권혁태·차승기 엮음), 서울: 그린비, p. 33).

어 주목된다.

먼저 조선조 광해군의 대외정책을 살피는 과정에서 만선사의 재검토를 시도한 다키자와 노리오키의 연구를 들 수 있다. 다키자와는 하타다의 만선사 비판이 만선사에 대한 구체적인 고찰을 소홀히 한 채 그것이 한국사 연구에 끼친 영향만을 거론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만선사를 타율사관의 일종으로 규정한 하타다의 논의가 이후에도 그대로 계승되어 왔다고 지적하였다.⁹⁾ 이에 그는 1927년 8월에 행해진 이나바의 강연을 중심으로 만선사에 대한 보다 ‘실증적’인 분석을 시도했으며, 결론적으로는 “이나바가 만선사에서 강조한 것은 조선사회의 타율성보다는 정체성이었고, 대륙에서 조선으로의 파동이라기보다는 조선에서 대륙으로의 ‘진출’이었다”고 주장하였다.¹⁰⁾

사실 위의 논의는 한명기의 광해군 연구에 대한 반론적 성격을 띤다. 간단히 말해서, 이나바와 마찬가지로 광해군의 대외정책을 긍정하면서도 이나바의 만선사는 비판의 대상으로 삼은 한명기에 대해, 다키자와는 광해군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만선사의 역사인식과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드러냄으로써 ‘광해군=긍정/만선사=부정’의 등식이 성립할 수 없음을 입증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접근 방식은 다키자와가 앞으로의 과제로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이, 조선인의 민족주의 역사학과 일본인의 식민주의 역사학 사이의 공유 지점을 발견함으로써, 기왕의 대립적 인식 구도를 넘어 양자 간 관계를 새롭게 파악하려는 시도와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그러나 다키자와의 발견은 대체로 하타다의 논의 속에서도 이미 언급된 내용들이다. 더구나 이나바의 만선사를 “제국주의 일본의 대륙침략과 궤를 같이 하여 ‘일본국민’을 위한다는 명목 하에 주창되던 조선사”¹¹⁾라고 정의하기에 이르면, 만선사에 대한 하타

9) 다키자와 노리오키(2003), 「이나바 이와키치와 ‘만선사」, 『한일관계사연구』 19, p. 114.

10) 위의 논문, pp. 125-126.

다와의 견해 차이는 거의 사라지게 된다.

사쿠라자와 아이는 처음부터 만선사의 실체 규명을 목적으로 만선사의 산실 역할을 한 만철역사지리조사부의 연구성과를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조사부가 도쿄지사 내에 설치되어 있던 시기(1908년 1월~1913년 12월)의 성과물들은 만선사가 아니라 만주사와 조선사를 대상으로 했으며, 1914년에 도쿄대학으로 사업이 이관된 후로도 만선사보다는 다른 분야, 즉 만선관계사, 만주사, 조선사, 몽고사, 중국사상사 등에 주제가 걸쳐 있었다고 한다.¹²⁾ 사쿠라자와는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만선사는 하나의 역사체계라기보다는 주장에 불과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는 만선사에 대한 ‘오해’가 생긴 원인을 다키자와와 마찬가지로 하타다에게서 구했다. 한국사의 자주적 발전을 강조하려는 목적에서 이나바의 주장만을 근거로 만선사를 하나의 역사체계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다.¹³⁾ 그러나 이와 같은 시각에 대한 비판은 하타다의 논문 제목이 「만선사의 허상」¹⁴⁾ 이었다는 점을 상기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것이다.

한편 만선사 연구의 “현 단계의 도달점”¹⁵⁾이라고 평가 받고 있는 이노우에 나오키의 『제국일본과 ‘만선사’』를 살펴보자. 이 책에서도 연구사 정리 과정에서 하타다를 거론하고 있는데, 이노우에는 만주국 연구자인 다나카 류이치의 말을 빌려 다음과 같이 비판하였다. 즉 하타다의 만선

11) 위의 논문, p. 125.

12) 櫻澤亞伊(2007), 「‘滿鮮史觀’の再檢討 —‘滿鮮歴史地理調査部’と稻葉岩吉を中心に—」, 『現代社會文化研究』 37, p. 26.

13) 사쿠라자와 아이(2009), 「이나바 이와키치의 ‘만선불가분론’」, 『일제시기 만주사 · 조선사 인식』, 동북아연사재단, p. 16.

14) 旗田巍(1969), 「‘滿鮮史’の虚像」, 『日本人の朝鮮觀』, 東京: 勁草書房. 이 글은 『鈴木俊教授還曆記念東洋史論叢』(鈴木俊教授還曆記念會, 1964)에 수록된 것을 재수록한 것이다.

15) 毛利英介(2015), 「滿洲史と東北史のあいだ —稻葉岩吉と金毓黻の交流より—」, 『關西大學東西學術研究所紀要』 48, p. 344.

사 비판으로 인해 전후 한국근대사가 일국사적 색채를 강하게 띠게 되었다는 것이다. 나아가 이에 덧붙여 말하기를, 종래의 만선사연구 비판이 민족이나 국가를 자명한 것으로 간주해 온 사실에는 당혹감을 감출 수 없다고 했다.¹⁶⁾

만약 이러한 이노우에의 주장을 탈근대적 논의 위에 자리매김할 수 있다면, 하타다의 ‘전후 조선사학’은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실증주의적 접근과 탈근대적 논의 사이에서 해체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만선사의 실체를 인정하는가 여부와 상관없이 하타다 비판을 매개로 만선사와 관련한 논의가 축적되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새로운 방법론으로서 ‘만선사적 시점’까지 제안되고 있다는 점이다.¹⁷⁾ 여기에는 종래와 같이 민족주의 역사학과 식민주의 역사학의 구도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또 다른 과제들이 포함되어 있다. 실증주의와 포스트모더니즘의 공모라고 할 수 있는 신경향의 등장과 또 그것이 초래할 수 있는 결과에 대한 분석이 요구되는 바이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의식 위에서 하타다의 문제제기가 과연 정당한 평가를 받고 있는지 또한 검토될 필요가 있다.

이하에서는 『조선사』가 간행된 1951년으로 거슬러 올라가고자 한다. 먼저 제2장에서는 전후 조선사학의 방향성을 제시한 『조선사』의 서문을 분석한 위에, 그로부터 제기된 문제제기가 어떻게 전후 일본이라는 맥락 속에 자리매김 될 수 있는지를 ‘민족’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검토할 것이다. 이어서 제3장에서는 하타다의 자기반성 과정이기도 했던 아카데미즘 비판의 내용 및 전개를 살펴볼 것이다. 이로부터 전후 조선사학이 갖는 현재적 의의와 새로운 가능성을 탐구해 보고자 한다.

16) 井上直樹(2013), 『帝國日本と‘滿鮮史’—大陸政策と朝鮮・滿洲認識—』, 東京: 塙書房, p. 47.

17) 위의 책, p. 230.

2. ‘전후’의 공간과 조선사학의 재구성: 비판에서 반성까지

하타다 다카시의 전후 조선사학은 전전의 조선사학을 비판한 『조선사』 간행과 함께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와나미 서점의 의뢰로 시작된 『조선사』 집필은 10평이 채 안 되는 도쿄도립대학 역사연구실의 한 구석에서 이루어졌다.¹⁸⁾ 하타다는 『조선사』 집필과 관련하여 “매우 대담하게 가설을 세워 일찍부터 생각하고 있던 바를 썼다”고 언급했을 뿐이지만,¹⁹⁾ 스에마쓰 야스카즈는 “극히 평범한 장절 속에서 비범한 기술(記述)을 전개하고 있다”고 평했으며,²⁰⁾ 천관우는 “이 역작은 국사학의 귀중한 수확의 하나”인 동시에 “국내 국사학계의 일대 경종이 아닐 수 없다”고 말하였다.²¹⁾ 이 책은 이후 재일조선인을 비롯한 다수의 학생들을 하타다의 수업으로 끌어들였다. 그중 한 사람인 이진희는 『조선사』의 서문을 읽으며 전율마저 느꼈다고 회고하였다.²²⁾ 뿐만 아니라 1969년에는 『조선사』의 영문판이 간행되었는데, 1961년부터 66년까지 주일미국대사를 역임한 에드윈 라이샤워는 『동양문화사』(East Asia) 집필 때 한국사 부분은 그에 많이 의존했음을 고백하기도 했다.²³⁾

『조선사』 간행으로부터 대략 20년이 경과한 1969년에 하타다는 『일본인의 조선관』이라는 책을 내놓게 된다.²⁴⁾ 1960년대에 들어 그는 한일

18) 三好洋子(1995), 「旗田先生の思い出」, 『追悼 旗田巍先生』(旗田巍先生追悼集刊行會 編), 東京: Pワード, pp. 108-109.

19) 旗田巍(1978), 「朝鮮史研究をかえりみて」, 『朝鮮史研究會論文集』 15, pp. 148-149.

20) 末松保和・周藤吉之・山邊健太郎(1952), 「旗田巍著『朝鮮史』」, 『歴史學研究』 156, p. 41.

21) 천관우(1952), 「旗田巍著 朝鮮史」, 『역사학보』 1, p. 128.

22) 李進熙(1995), 「旗田巍先生の死を悼む」, 『追悼 旗田巍先生』(旗田巍先生追悼集刊行會 編), 東京: Pワード, p. 158.

23) 안종철(2013), 「주일대사 에드윈 라이샤워의 ‘근대화론’과 한국사 인식」, 『역사문제연구』 29, p. 315.

회답에 반대하는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였다. 그 과정에서 과거의 식민지 지배에 대한 책임의식이 일본인에게는 결여되어 있음을 통감하고, 그러한 무책임의 기저를 이루는 일본인의 조선관을 연구하기 시작했다.²⁵⁾ 이 책에 수록된 글들은 대체로 그와 관련된 논문과 평론들이다. 이 시기에 하타다는 이미 전후 조선사학의 개척자라는 부동의 지위에 올라 있었다. 그러나 뜻밖에도 책 출간을 앞두고서 어느 좌담회에서 발언한 내용이 문제시 되었고, 그로 인해 하타다는 자신의 지난 활동을 모두 반성의 목록 위에 올려놓지 않으면 안 되었다.

전전의 조선사학 비판으로부터 시작한 하타다의 전후 조선사학은 통렬한 자기반성의 시점에서 일단락되었다고 생각한다. 이하에서는 이 기간에 생산된 하타다의 논저를 주된 검토 대상으로 삼았다. 그리고 전술한 바와 같이 전후 하타다 조선사학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조선사』로부터 검토를 시작하기로 하자.

『조선사』는 전후 최초의 한국사 통사였다. 총 8개로 구성된 각 장 중 전근대 5개 장은 원시시대, 삼국시대, 통일신라, 고려, 조선 등과 같이 주로 왕조를 장 구분의 기준으로 삼은 데 반해, 근현대 3개 장은 개항, 병합, 해방이라고 하는 변곡점적 사건들이 그를 대신하였다. 시대가 내려올수록 상세하게 서술하는 방식을 취했던 까닭에, 문헌 해제와 연표 등을 제외한 본문 총 252쪽 중 근현대가 거의 절반에 가까운 분량을 차지한다. 본문의 내용을 보면, 천관우가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전전의 연구 성과에 의존하여 서술된 부분도 적지 않았던 까닭에, 기자조선을 한반도 최초의 국가로 본다거나, 임나가 일본의 지배하에 있었다고 하거나, 심지어는 외국의 지배가 한국사의 구조를 규정하는 최대 동력이었다고 하는 부분들에서는 이른바 ‘식민사관’의 영향도 확인할 수 있다.²⁶⁾ 그럼에도

24) 이 책은 이기동의 번역으로 1983년에 한국에서도 출판되었다.

25) 旗田巍(1969), 『日本人の朝鮮觀』, 勁草書店, pp. 296-297.

26) 천관우(1952), 앞의 논문, p. 127.

도 불구하고 『조선사』가 이후 조선사학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었던 것은 다름이 아니라 전후 조선사학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한 서문 때문이었다. 다소 긴 내용이지만 그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① 일본 동양사학의 개척자들은 제1보를 조선사연구로 내딛었다. 또한 초기의 일본고대사 연구자·법제사가·언어학자 등도 자기 연구 분야의 중요한 일부로써 조선사에 주목했다. 『사학잡지』(史學雜誌)의 이른 시기 부분을 꺼내 보면, 나카 미치요, 쓰보이 구메조, 요시다 도고, 시라토리 구라키치, 미야사키 미치사부로, 나카다 카오루, 가나자와 쇼자부 등의 제씨가 조선고대사에 대해 활발하게 연구를 발표하고 격렬한 논전을 전개하고 있다. 일본의 대륙정책이 제1보를 조선으로 향함에 따라, 일본학계의 관심도 조선에 강렬히 쏟아졌던 것이다. (중략)

② 국가적 배경을 갖는 조선사연구가 진행되는 속에서 무엇보다 주의해야 할 것은 조선인의 손에 의한 조선사연구가 거의 성장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일본의 통치정책은 조선인 조선사가를 낳는 방향을 취하지 않았다. 조선이라는 말이 조선인에게 매우 불쾌한 느낌을 주었던 때에는 조선사를 연구하는 의욕도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동시에 이것은 젊은 일본인에 대해서도 조선사연구에 대한 열의를 상실시켰다.

③ 또한 조선사연구를 저해한 원인은 현실정치의 면에만 있던 것이 아니라 학문의 내용 그 자체 속에도 있었다. 일본인의 조선사연구의 주력이 고대사에 집중되고 근대사에는 부족했던 데다가, 고대사 연구는 문헌비판, 연대기, 지명고증을 특색으로 하는 것이었다. 이는 오래된 도그마를 타파하는 무기로써 일찍이는 크게 진보적인 역할도 했지만, 새로운 고뇌의 시대에는 너무나도 비인간적인 학문이었다. 어떤 사회에 어떤 인간이 살았고 무엇을 기뻐하며 무엇을 고민하고 있었는지를 무시하고, 오로지 하나의 사건이 일어난 위치와 연대를 정확하게 기술하기만 했다. 이는 역사학의 중요한 일전제 이기는 해도 그것만으로는 다양한 인간의 역사를 다 담아낼 수 없

다. 인간이 없는 역사학이 만들어진 것이다. 이것이 조선사에 대한 젊은 세대의 관심을 경감시켰다. 그리고 일본의 패퇴로 조선에 대한 지배가 종결되자 조선사연구자는 국가의 지원을 얻을 수 없게 되었다. 그 때문에 그때까지의 조선 연구는 단번에 침체해 버렸다.

④ 이제 조선사연구는 새로운 재출발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종래의 성과를 받아들이는 동시에, 그를 극복하여 새로운 조선사를 개척하지 않으면 안 된다. 무엇보다도 조선의 인간이 걸어 온 조선인의 역사를 연구해야만 한다. 지금 고난의 철화에 휩싸여 있는 조선인의 고뇌를 자기의 고뇌로 삼는 것이 조선사연구의 기점이라고 생각한다. 그에 의해서만 조선사연구가 세계사 연구에 연결되고, 동시에 현대를 살아가는 인간에 연결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반성 위에서 서서 나는 조선사를 썼다. 그 목적이 충분히 달성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걸음이라도 조선사의 진보에 기여했기를 바라는 바이다(문단 나누기, 문단 앞 숫자는 필자).²⁷⁾

서문은 위와 같이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①에서는 일본 동양학의 시초에 조선사연구가 위치해 있음을 폭로하고 또 그것이 제국 일본의 대외적 팽창과 맞물려 성장해 갔음을 지적하였다. ②와 ③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사연구가 점차 쇠퇴하게 된 원인을 밝히고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①에서 지적한 학문과 권력 사이의 유착관계에서 구하였다. 권력을 배경으로 한 학문은 국가기관 밖에서 연구자를 키우는 일에, 특히 조선인 연구자의 육성에 실패했으며, 조선인에게 환영 받지 못한 조선사는 결국 그 누구의 연구의욕도 불러일으키지 못했다는 것이다. 두 번째 이유는 학문 내적인 문제이다. 조선사연구는 고대사를 중심으로 문헌 속 시간 및 장소 고증에만 치중해 왔던 까닭에 인간 부재의 학문으로 성장했고, 그것이 곧 조선사에 대한 젊은 연구자들의 흥미를 잃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결론적으로 ④에서는 전후 조선사학은 인

27) 旗田巍(1951), 『朝鮮史』, 東京: 岩波書店, pp. 3-5.

간 중심의, 그리고 조선인 중심의 연구가 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는데, 이때 ‘조선인’이란 수많은 외난을 통해 외적에 대한 적개심을 강하게 키워, 근대 이후 더욱 노골화된 외적의 침입 속에서도 그에 굴하지 않는 전통을 다양한 형태로 발현시킨 ‘민족’적 존재로서 상정되었다.²⁸⁾

이처럼 위의 서문은 전전 조선사학과의 단절을 표명하는 하나의 선언문이었다. 그렇지만 이것은 전전의 다른 지적 자원을 계승한 결과이기도 했다. 이 지점에서 매개자로서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역사학연구회이다.

역사학연구회는 1932년에 ‘역사의 대중화’와 ‘역사의 과학적 연구’를 목표로 창립되었다. 이듬해 ‘다키가와 사건’(瀧川事件)²⁹⁾을 계기로 학생들과 정부 간 대립이 격화되는 속에서, 젊은 역사연구자들은 역사학연구회의 재확립에서 활로를 찾았고, 그를 위한 토대로서 연구회의 기관지인 『역사학연구』를 창간하였다. 이후 기존 역사학에 회의를 품은 이들이 연구회로 모여들었고,³⁰⁾ 하타다 또한 연구회에서 기탄없는 논의를 전개할 수 있었다.³¹⁾ 전술한 바와 같이 1948년에 귀국한 그는 이미 오랜 기간 일본 학계와 떨어져 있었던 만큼 신문잡지에서 학술논문에 이르기까지 닥치는 대로 탐독했는데,³²⁾ 특히 『역사학연구』는 연구회를 직접 방문하여 기간된 분을 모두 확보하는 열의까지 보였다.³³⁾ 더구나 1959년에 하타다 주도로 창립된 조선사연구회도 당초에는 역사학연구회의 동양사부

28) 위의 책, pp. 251-252.

29) ‘다키가와 사건’이란 1933년에 교토제국대학 법학부 교수인 다키가와 유키도키(瀧川幸辰)를 그의 저서가 공산주의적이라는 이유로 문부대신 하토야마 이치로(鳩山一郎)가 강제로 파면시킨 사건을 말한다.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치를 지키기 위해 교수단과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반대운동을 전개했으나 곧 탄압되었다(『大辭林』 제3판).

30) 旗田巍(1965.1), 「東洋史學の回想(二)」, 『歴史評論』 173, pp. 12-13.

31) 旗田巍(1978), 앞의 논문, p. 145.

32) 위의 논문, pp. 147-148.

33) 矢澤康祐(1995), 「旗田巍先生の逝去を悼む」, 『追悼 旗田巍先生』(旗田巍先生追悼集刊行會 編), 東京: Pワード, p. 94.

회로서 구상되었음을 고려할 때,³⁴⁾ 하타다의 전후 조선사학은 기본적으로 역사학연구회의 비판적 역사의식 속에서 배양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하타다의 『조선사』가 간행되던 바로 그 해, 공교롭게도 역사학연구회가 주최한 학술대회의 주제 또한 ‘민족’ 문제였다.³⁵⁾ 「역사에서의 민족 문제」라는 전체 주제 아래 고·중세 부문에서는 도마 세타와 후루시마 가즈오가 각각 「고대의 민족 문제」와 「중세의 민족 문제」를, 근대 부문에서는 스즈키 마사시, 도야마 시게키, 노자와 유타카가 「근대사에서의 민족 문제」, 「일본의 내셔널리즘」, 「중국의 민족해방운동」을 차례로 발표하였다. 1992년에 역사학연구회 창립 60주년을 기념하는 좌담회 석상에서 나가하라 게지는 1951년의 대회를 다음과 같이 회고하였다. 즉 그것은 “전후의 국민적 과제를 본격적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일국 완결적인 역사 인식에 기반하여 세계사의 기본 법칙을 논하였던 이전의 대회들과 달리, “민족 문제는 (현실이 제기하는 문제들: 필자) 정면에서 대응하려는 자세가 매우 강했”다는 것이다.³⁶⁾

그러나 국가주의의 기억으로 인해 ‘민족’이나 ‘애국’과 같은 말을 꺼내기 어려웠던 당시 상황을 고려할 때, ‘민족’ 문제의 공론화를 단순히 국민적 과제를 받아들인 연구의 심화로만 설명할 수는 없을 것이다. 나카노 도시오가 지적한 것처럼, 패전 직후 내셔널리즘의 쇠퇴가 민족주의의 소멸을 보증하지는 않았다. 민족주의는 공론의 무대 뒤로 잠시 물러나 있었을 뿐이며, 이러한 민족주의의 잠재화 경향 속에서 전전의 가해책임과 직접 대면하는 일도 함께 회피되었다. 그러던 중 냉전을 배경으로 한 점령정책의 ‘역코스’로 인해 1951년 무렵부터 굴욕과 피해의식으로 충만한 ‘민족’ 문제가 각성되기에 이르렀고, 결과적으로 전전의 가해

34) 위 논문, p. 95; 「ルポ・朝鮮史研究會」, 『鷄林』 1959년 3호, p. 36.

35) 歴史學研究會編(1951), 『歴史における民族の問題 —1951年度歴史學研究會大會報告—』, 東京: 岩波書店 참고.

36) 歴史學研究會編(1993), 『戦後歴史學と歴研のあゆみ』, 東京: 青木書店, p. 63.

책임은 방기된 채 ‘민족’의 복귀만이 이루어졌던 것이다.³⁷⁾

이소마에 준이치는 일본의 ‘전후 역사학’을 대표하는 역사학자인 이시모다 쇼를 통해 이 시기 ‘민족’ 문제에 한 걸음 더 들어갔다. 그에 따르면, 1950년대 초 이시모다의 저작들에서 민족이란 기본적으로 시대에 따라 변하면서도 일관된 연속성을 지닌 전통체로 정의되었으며, 제국주의와 대치하는 속에서는 간단하게 균질적인 하나의 덩어리로 설정되었다. 그렇다고 해서 이시모다의 민족관이 전전의 황국사관처럼 침략성을 띠는 것은 아니었다. 이시모다는 어디까지나 ‘민족’을 단위로 한 개별적인 역사 위에 국내 민주주의와 국제 평화를 구상하려 했다는 것이다. 다만 1953년 이후로는 자신의 민족관을 반성하면서 민족 내부에 계급 문제를 끌어들이고자 했으나, 그럼에도 여전히 다민족제국주의=惡/단일민족국가=善이라는 도식 위에 일본민족의 균일성은 무비판적으로 긍정되었으며, 그로 인해 일제가 야기했던 타민족과의 갈등 또한 사고 저편으로 밀려나게 되었다고 설명하였다.³⁸⁾

그렇다면 한국사 서술에 있어서 ‘조선민족’ 본위를 주장했던 하타다는 이 시기 ‘민족의 발견’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었을까. 하타다는 전술한 학술대회 발표자 중 한 사람인 도마 세타의 논문 「동아에서의 정치적 사회의 성립」(『역사학연구』 150호, 1951년 3월)에 대한 서평을 1951년 9월에 간행된 『역사학연구』 153호에 게재했다. 이 글의 제목이 「고대의 민족 문제」인 사실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서평의 중심은 ‘민족’에 있었다.

하타다의 정리에 따르면, 도마의 논문은 중국의 영향 아래 동방의 제민족이 성장했다는 기존 견해를 ‘민족’의 관점에서부터 재검토한 것으로, 결론적으로는 강력한 지배 권력을 동반한 중국 문명의 유입이 오히려 동방 제 사회의 성장을 방해했을 뿐이라고 주장하였다. 하타다는 이

37) 나카노 도시오(2013), 앞의 논문, pp. 32-35.

38) 磯前順一(2010), 「石母田正と敗北の思考 —1950年代における轉回をめぐって—」, 『戦後知の可能性 —歴史・宗教・民衆—』, 東京: 山川出版社, pp. 39-46.

논문의 연구사적 의의를 인정하면서도 다음의 몇 가지 점들에 대해서는 의의를 제기하였다.

먼저 지적한 것은 '민족'을 말하면서도 그것이 출현하게 된 사회적 조건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하타다는 "'민족'이 탄생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사회적 조건이 필요하다"고 말했는데,³⁹⁾ 여기에서 '일정한 사회적 조건'이란 고대통일국가의 형성, 다시 말해서 노예제의 성립 및 발전을 가리킨다. '사회적 조건' 앞에 '일정의'라는 수식어가 붙은 것은 '사회적 조건'에 여러 단계가 상정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하타다는 '사회적 조건'이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게 되면 '민족' 또한 그 제약 속에서 새로운 성격을 부여받게 된다고 보았고, 따라서 고대 '민족'과 현대 '민족' 사이의 격절을 반복해서 강조하였다. 그리고 연구자가 이러한 차이에 민감하지 못할 경우 "고대의 '민족운동'은 고대의 것이 아니라 마치 현재의 것과 같이 되어, 고대사의 진보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현재를 고대에 환원시킬 위험마저 있다"고 경고하였다.⁴⁰⁾

그런데 위와 같은 지적에 앞서 하타다는 일찍이 민족의 기원과 그것의 특수성, 민족의 흥망 등을 중심 과제로 삼았던 전전의 고대사 연구가 초래했던 결과를 상기시키고 있었다. 말하자면 전전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과거 실체의 규명 가능성과 연구의 현재적 의의를 되물었던 것이며, 만약에 그중 어느 하나라도 연구자가 답할 수 없다고 한다면, '민족'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거나 '민족'을 취급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단언하였다.⁴¹⁾ 그러므로 하타다의 다음과 같은 비판은 도마 한 사람이 아니라 전후 일본 역사학계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봐도 좋을 것이다.

39) 旗田巍(1951), 「古代における民族の問題」, 『歴史學研究』 153호, p. 44.

40) 위의 논문, pp. 43-44.

41) 위의 논문, p. 44.

고대의 ‘민족’은 현재의 민족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고대의 민족 문제를 생각한다는 편의주의로부터가 아니라(이는 기왕의 민족주의의 상투적 수단이었다), 고대사의 구체적인 인식 속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면 안 된다. 이에 의해서만 현재의 민족 문제의 의미도 명백해 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점에 대해 도마씨는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없다. 그 때문에 ‘민족’의 내용이 애매해지고 또 ‘민족’을 생각하는 것이 고대사의 전진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도 불분명하며, 단지 현재의 민족적 감정만이 넘쳐나는 인상을 준다. 도마씨의 논문 중에는 경복할 만한 점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문제를 ‘민족’적 각도에서 말해야 하는지, ‘민족’ 따위 말하지 않고도 끝날 일이 아닌지 등의 의문이 해소되지 않는다. 열정·감개가 앞서 달린 것이 이런 결과를 초래했을 것이다.⁴²⁾

또 다른 비판은 ‘민족’ 내부를 향했다. 도마는 외침에 대항한 신라를 ‘전 민족’의 강고한 결합체로 보았으나, 하타다는 신라의 골품제를 들어 도마의 논의가 사실에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하타다에 따르면, 신라의 ‘민족’ 내부는 귀족과 민중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귀족층 내에서는 오래된 족적 공동관계(族的 共同關係)가 남아 있었지만, 대다수의 민중은 귀족층에서만 전유되는 그런 관계 밖에서 노예와 같은 상태에 처해 있었다. 때문에 도마의 주장처럼 삼국통일을 위한 신라 전 민족의 노력이라든가, 그를 위한 김유신의 헌신 등은 있을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하타다는 이와 같은 오류의 원인을 다시금 ‘민족’ 출현의 사회적 조건이 간과된 점에서 구하였다. 즉 “고대에 ‘민족’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고대의 것이고, 노예제 위에 성립하는 것이다. 이를 무시한 ‘민족’은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⁴³⁾

요컨대 하타다에게 있어서 ‘민족’이란 일정의 사회적 조건 위에 출현

42) 위의 논문, pp. 45-46.

43) 위의 논문, p. 45.

하여, 외압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발전을 이루어 가는 존재였다고 말할 수 있다. 이때 저항은 같은 민족이라고 해도 지배층이 아닌 민중의 몫이었으며 따라서 저항의 전통은 민중에 의해서만 계승될 수 있었다. 하타다의 ‘민족’은 민족 내 계급대립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시모다의 1953년 이후의 ‘민족’ 개념을 선취한 것으로도 보인다. 그러나 하타다는 전전의 경험에 비추어 전후 공간에서의 ‘민족’의 복귀 또한 경계함에 따라 ‘전후 역사학’과의 긴장관계 또한 놓치지 않을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소마에가 이시모다에게 행했던 비판, 즉 “이시모다의 논의는 근대를 넘어 역사를 관통하는 연속성을 암묵의 전제로 한 것으로, 민족이라는 주체 그 자체를 역사의 흐름 속에서 대상화하지는 못했다”⁴⁴⁾고 하는 지적은 하타다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비록 하타다의 ‘민족’이 사회적 조건에 제약을 받고 계급대립을 내포하는 단위였다고 할지라도, ‘민족’ 자체는 그 성격을 바꾸어 가면서도 역사 속에 면면히 이어지는 초역사적 존재로 간주되었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하타다의 논의가 갖는 한계점도 분명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하타다의 ‘민족’은 이시모다의 그것과 달리 자신과 동일시되는 ‘일본민족’이 아니라 타자로서의 ‘조선민족’이었다는 점도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조선민족’을 주체로 한 하타다의 전후 조선사학은 ‘민족’ 자체는 아니더라도 ‘일본민족’에 대한 상대화와 그에 기초한 양자 간의 관계 설정이 가능하였다. 후술하는 바와 같이 그가 자신의 반성 목록에 ‘민족’의 초역사성 문제가 아니라 ‘조선민족’이라는 타자와의 대면 가능성을 올려놓았다는 사실 또한 그가 ‘민족’을 통해 실천하고자 했던 바가 무엇인지를 방증해 준다. 다만 그의 반성은 그 가능성을 확대시키는 방향이 아니라 오히려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이끌었다. 이는 반성을 촉구한 사건의 특성과도 연관되는 문제로서, 이에 대해서는

44) 磯前順一(2010), 앞의 논문, p. 48.

이하에서 좀 더 살펴보기로 하자.

하타다의 반성은 『조선연구』 80호(1968년 10월 간행)의 좌담회 글에 하타다의 차별 발언이 포함된 채 그대로 간행된 일에서 비롯되었다.⁴⁵⁾ 하타다의 차별 발언이란 일본 내 조선사연구의 고립 상황을 설명하면서 그를 차별어인 ‘특수부락’(特殊部落)에 비유한 것을 말한다. 좌담회에는 하타다를 비롯하여 안도 히코타로, 우부카타 나오키치, 와타나베 마나부, 가지무라 히데키, 미야타 세쓰코 등이 참여하고 있었으나, 좌담회 석상에서는 물론 잡지의 간행 과정에서도 하타다의 발언을 문제 삼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잡지가 간행된 후 독자들로부터 항의와 비판이 이어졌고, 이후 『조선연구』 측의 미온적인 대처까지 더해져 사태는 걷잡을 수 없게 되었다.⁴⁶⁾

결국 하타다는 『조선연구』 87호(1969년 7월 간행)에 「차별발언 문제와 나의 반성」이라는 글을 실었다.⁴⁷⁾ 이 글에서 그는 차별어 사용에 대한 반성부터 시작해야 했다. 일본 내에 미해방부락이 부당한 차별을 받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그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차별어를 사용했으며 심지어는 그를 차별어로 인지하지도 못했다는 것이다. 또한 자기 나름대로는 지금까지 조선 및 조선인에 대한 일본인의 편견을 비판해

45) 『朝鮮研究』(본래 『朝鮮研究月報』였던 것을 30호부터 개칭)를 발행한 일본조선연구소는 1961년 11월 11일에 설립되었다. 문제가 된 좌담회는 1962년부터 64년까지 총 10회에 걸쳐 개최되어, 후에 연구소의 가장 큰 업적으로 평가받게 되는 연속 심포지엄 「일본에서의 조선연구의 축적을 어떻게 계승할 것인가」(日本における朝鮮研究の蓄積をいかに繼承するか)를 총괄하는 자리였다. 이 좌담회를 포함한 연속 심포지엄의 내용은 ‘심포지엄 일본과 조선(シムポジウム 日本と朝鮮)’이라는 제목으로 묶여 1969년 1월 勁草書房에서 간행되었다. 이때 하타다의 차별 발언 부분은 ‘部落’을 삭제하는 형태로 수정이 이루어졌다.

46) 하타다의 차별 발언 문제의 경위는 「本誌差別發言問題の經過と私たちの伴性」(『朝鮮研究』 87, 1969)에 상세하다.

47) 하타다 외에 좌담회에 참석했던 미야타 세쓰코, 가지무라 히데키의 반성문도 각각 『조선연구』 87호와 89호에 실렸다.

왔다고 생각했지만, 이제 그에 대해서도 커다란 불안을 느끼게 되었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서 “동포에 대한 차별의식도 씻어내지 못하고 있으면서 대체 조선·조선인에 대한 편견을 비판하는 것이 가능하거나 한 것인가”라는 자문이다.

계속해서 반성은 공감의 문제로 이어졌다. 그는 차별과 싸우는 당사자들만큼의 의식은 바랄 수도 없거니와, 그들의 고통을 이해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단정을 통해 이제 그에게 가능한 일이란 차별 받는 이들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는 정도밖에 남지 않게 되었다. 여기에서 그는 또다시 조선인의 일을 떠올렸다. 마찬가지로 “조선인의 고통은 일본인인 나에게서 쉽게 알 수 없는 일”이라면서, “이해가 된 듯한 기분이 드는 것도 엄히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다짐했다.

이상과 같은 반성은 결국 『조선사』 서문에서 하타다 자신이 제기했던 두 가지 가능성에 대한 회의를 불러일으킨다. 첫 번째는 국경 밖 타자에 대한 인식 가능성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전후 일본은 식민지 지배에 대한 망각 위에 성립해 있었다. 그러므로 “조선의 인간이 걸어 온 조선인의 역사를 연구해야 한다”는 하타다의 문제제기는 일본 사회의 망각에 대한 저항적 의미를 내포하게 된다. 그러나 위와 같이 일본 동포에 대한 이해 없이는 조선인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성은 결국 ‘일본민족’이라는 자기 귀속의 확인이자 그것으로의 회귀였다고 말할 수 있다.

두 번째는 타자와의 공감 가능성이다. 누차 이야기한 바와 같이 하타다는 “조선인의 고뇌를 자기의 고뇌로 삼는 것이 조선사연구의 기점”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반성을 통해 자신의 비당사자성을 재확인 하면서 그러한 공감 가능성은 원칙적으로 부정되고 말았다. 이것은 처음부터 공감 불가를 외치며 그보다는 침략국 인민으로서의 일본인의 위치와 그에 대한 자각을 강조했던 야마베 겐타로의 비판을 떠올리게 한다.⁴⁸⁾

48) 末松保和・周藤吉之・山邊健太郎, 앞의 논문, p. 41. 그러나 하타다가 조선인과의 공감 가능성을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리고 완전하게 부정했던 것은 아니다.

결국 하타다는 자신의 불찰의 원인을 “젊었을 때부터 아카데미즘 속에서 자라 조선사를 배웠”다는 과거 경력에서 구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항의 방문한 이들에게서 하타다가 직접 들은 이야기들 중에는 “연구나 조사를 하는 자는 들은 것을 자신의 업적으로 삼을 줄만 알고 고통스런 인간을 해방시키기 위해 힘을 쓰지는 않는”다는 비판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런데 현실과 벽을 쌓은 아카데미즘 비판이야말로 『조선사』 이후 계속되어 온 하타다의 주요 테마 중 하나였다. 그렇다면 그것은 극복하고자 했으나 끝내 극복되지 못한 과제였다고 평해야 할 것인가. 다음 장에서는 아카데미즘 문제에 대한 하타다의 천착 과정을 살펴보자.

3. 학문으로서의 ‘전후 조선사학’: 순수 학문의 극복을 위하여

하타다의 전전 조선사학과의 단절 선언은 현재성을 띠는 문제제기이기도 했다. 『조선사』와 마찬가지로 1951년에 간행된 『조선학보』 창간호

1979년 1월 12일 센슈대학에서 열린 최종 강연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조선인의 고뇌를 나의 고뇌로 삼는다”고 한 점에 대해서는 매우 엄한 비판을 받았습니다. 일본인에게 조선인의 고뇌가 알 수 있을 리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이다, 일본인연구자는 일본의 조선침략사의 폭로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하는 비판이었습니다. 분명 일본인이 조선인의 고뇌를 이해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그런 것을 안이하게 말해 버린 것은 경솔했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이 완전히 잘못된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본인에게도 조선인의 고뇌에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 있으며, 공감의 노력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입장에 몸을 두는 것은 불가능할 지라도, 상대를 인식하고 이해하여 상대에게 공감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 전전의 조선사연구에서는 매우 부족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旗田巍(1992), 「新しい朝鮮史像をもとめて」, 『新しい朝鮮史像をもとめて』, 東京: 大和書房, p. 231).” 이와 같이 하타다는 한편으로는 『조선사』의 문제제기가 경솔했음을 인정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타자와의 공감 가능성을 끝까지 놓치지 않으려 했다. 달리 말하자면, 그는 퇴임 때까지도 자신의 ‘반성’과 대결하고 있던 셈이며, 끝내 판가름되지 않는 승패로 인해 그로부터 벗어나지도 못했다.

에는 경성제국대학에서 교편을 잡았던 시카타 히로시의 「구래(舊來)의 조선사회의 역사적 성격에 대해」라는 논문이 수록되었다. 이 글에서는 “이 시대(조선시대: 필자)의 사회사상을 대관한 관찰자 대부분의 결론은 ‘정체성’ 한 마디로 끝난다”면서 종래의 정체성론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었다.⁴⁹⁾ 또한 시카다와 마찬가지로 경성제국대학 교수였던 후지타 료사쿠는 1953년에 간행된 『조선의 역사』에서 “1910년의 일한병합에 따라 근대 문화에 조금 앞서 있던 일본이 잠들어 있는 반도에 그 은혜를 나누어 주었”다고 하고, 또 데라우치 총독에 대해서도 “무단적인 면이 있기는 했지만 단호히 추진한 몇몇의 일은 지금까지도 여전히 그 은혜를 입고 있는 바가 많”다고 평가했다.⁵⁰⁾ 뿐만 아니라 전후 최초(1950년 10월)의 한국학 관련 학회로서 『조선학보』의 간행 주체이기도 했던 조선학회의 분위기는 마치 경성제국대학 동창회 같은 느낌마저 주었다고 한다.⁵¹⁾ 스에히로 아키라는 전후 일본의 아시아연구의 특징으로서 인적·제도적 측면의 연속성이 지적 자원의 계승을 담보하지는 못한 점을 들었는데,⁵²⁾ 적어도 패전 직후 일본의 조선사학계는 전전의 지적 자원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었으며, 그 점에서 전후 공간에서 하나의 섬을 이루는 동시에 전후 사회의 이면을 폭로하는 존재이기도 했다고 말할 수 있다.

하타다는 이와 같은 배경에서 1964년에 발표한 「만선사의 허상 —일본 동양사가의 조선관—」을 통해 『조선사』 서문에서 제기했던 문제를

49) 寺内威太郎(2004), 「『滿鮮史』研究と稲葉岩吉」, 『植民地主義と歴史學: そのまなざしが残したもの』, 東京: 邊水書房, pp. 38-39에서 재인용.

50) 旗田巍 외(1964), 「(座談會)朝鮮研究の現状と課題」, 『東洋文化』 36, p. 95에서 재인용.

51) 위의 논문, p. 94. 조선학회의 창립 및 활동과 관련해서는 長森美信(2010), 「戰後日本における朝鮮中近世史研究 —1970年代までの高麗・朝鮮時代史研究を中心に—」, 『朝鮮史研究會論文集』 48 참고.

52) 末廣昭(2006), 「アジア調査の系譜」, 『岩波講座 ‘帝國’日本の學知』 제6권 地域研究としてのアジア(末廣昭 責任編集), 東京: 岩波書店, p. 59.

실증적으로 검토하는 단계로 나아가게 된다. 하타다는 먼저 ‘만선사’라는 용어가 마치 자명한 말인 것처럼 일찍부터 널리 사용되어 온 사실에 주목했다. 그리고 그 현상을 해명하기 위해 메이지 말기까지 거슬러 올라가 만선사의 기원을 파헤쳤으며, 결국에는 학문(=만선사)과 권력(=만한경영) 사이의 유착관계를 밝혀낸 후 다음과 같이 비판하였다.

만선사라는 것은 만한경영에 대응하여 역사가가 만들어낸 것으로, 그 기초에는 조선인·조선민족의 발전이나 해방운동에 대한 무관심 혹은 경시가 있다. 대륙정책이라는 현실에는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 정치세력과는 손을 잡으면서도, 자기의 연구대상 그 자체의 움직임에는 눈을 돌려버리는 역사가의 자세가 바로 만선사를 낳은 것이라고 말해도 좋다.⁵³⁾

그런데 이 글에서는 일찍이 『조선사』 서문에서는 볼 수 없던 새로운 문제도 함께 제기되었다. 그것은 학문의 순수성에 대한 물음이다.

종래의 조선사연구의 결함은 단순히 연구자가 그릇된 정치목적에 맹종·영합하여 임기응변적 조선사상을 만들어냈다고 하는 것에만 있지 않다. 그러한 비학문적인 일들도 상당히 있었다. 이는 당연히 부정되어야만 한다. 그러나 이런 것은 눈에 띄기 쉽기 때문에 비판하기도 어렵지 않다. 문제는 순수하게 학문 연구를 지향했다고 생각하고 있던 사람들의 연구 내면에까지 침투해 있던 뒤틀림이다. 이는 개개의 문제에 관한 학설의 차이를 뛰어넘어, 종래 일본인의 조선에 대한 자세의 뒤틀림이 야기한 연구자 공통의 뒤틀림이다. 이는 연구자 자신에게 의식되어 있지 않은 만큼 뿌리가 깊어 뽑아내기 어려운 것이다. 조선사연구를 올바른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서는 이를 연구자가 스스로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⁵⁴⁾

53) 旗田巍(1969), 「『滿鮮史』の虚像 —日本の東洋史家の朝鮮館—」, 『日本人の朝鮮觀』, 東京: 勁草書房, p. 190.



[그림 1] 「중국농촌관행조사」에 참여한 하타다 다카시(일본 도쿄 소재 조선장학회 내 하타다문고 소장).

즉 권력과 거리를 두고 순수 학문만을 탐구해 왔다는 사람들에게서도 조선을 대하는 자세에 있어서는 뒤틀림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타다는 만선사를 그런 대표적 사례로 들었던 것인데, 그것은 무엇보다도 만선사라는 용어가 동양사 및 조선사연구자들 사이에서 그 어떤 의심도 없이 널리 통용된 사실에 의해 증명된다고 하였다.

하타다가 학문의 순수성 문제에 주목하게 된 것은 그 자신도 참여했던 남만주철도주식회사⁵⁵⁾에 의한 「중국농촌관행조사」(中國農村慣行調査)

54) 위의 논문, pp. 180-181.

55) 남만주철도주식회사는 러일전쟁의 승리로 러시아로부터 동철철도의 寬成子(長春 교외에 위치) 이남의 철도와 그 연선 부속지에 관한 권한을 양도 받은 일본이 1906

의 성과를 전후 일본에서 출간하는 과정에서였다(사업성과는 1952년부터 58년까지 「중국농촌관행조사」라는 제목으로 총 6권이 출간되었다).⁵⁶⁾ 위 조사의 실시 경위와 방법을 개략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만철에 의한 농촌조사는 1910년대의 「만주관습조사」(滿洲舊慣調査)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지만, 촌락 레벨의 종합적인 실태조사는 1939년 말 만철 북지경제조사소(滿鐵北支經濟調査所)와 기획원 산하 동아연구소가 공동으로 실시한 「중국농촌관행조사」가 처음이었다. 사업 계획은 1939년 10월 동아연구소 제6조사위원회 내 학술부위원회에서 「화중상사관행조사계획」(華中商事慣行調査計劃)과 함께 「화북농촌관행조사계획」(華北農村慣行調査計劃)이라는 이름으로 수립되었고, 이와 호응하는 형태로 만철조사부가 북지경제조사소에 관행조사반을 조직하였다.⁵⁷⁾ 학술부위

년 11월에 창립한 반관반민(半官半民)의 주식회사이다(小林英夫(2015), 『滿鐵調査部』, 東京: 講談社, p. 17). 하타다가 만철의 조사사업에 참여하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만몽문화연구사업의 일환으로 동양문고에서 『조선왕조실록』을 초록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던 하타다는 동아연구소 설립 소식을 듣고서 지도교수인 이케우치 히로시에게 이직의 뜻을 밝혔다. 그러나 군인이나 관료에 의한 연구기관 통제에 큰 불만을 품고 있던 이케우치의 강력한 반대로 동아연구소행은 단념할 수밖에 없었다. 이후 역사학연구회 간사로 있을 때 면식이 있던 마르크스주의 법학자 히라노 요시타로의 제안으로 만철조사부행이 결정되었다고 한다(旗田巍(1965.1), 앞의 논문, pp. 15-17).

- 56) 旗田巍(1965.1), 앞의 논문, p. 17. “만철조사부에 가기로 했을 때 만철이라는 침략기관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반성이나 주저는 솔직히 전혀 없었습니다. 도쿄의 질식할 거 같은 분위기에서 벗어나, 넓은 세계에서 중국농촌연구에 참가하여 새로운 연구를 전개하게 될 것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침략기관의 일원이 된다고는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 건 의식 위로 떠오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쪽으로 건너가서도 그랬습니다. 전후 귀국하고 나서도 당분간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를 자각하게 된 것은 쇼와24년에 오사카에서 교원적격심사를 받았을 때입니다. 전쟁 중의 활동에 대해 질문을 받았을 때 만철조사부에 있었다고 답했더니, 그것이 문제가 되어 허가가 좀처럼 나지 않았던 까닭에 과연 그렇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때는 절실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미군의 명령 때문이라는 정도로 간단히 정리했습니다. 이것이 나 자신의 내면 문제가 된 것은 『중국농촌관행조사』 제1권이 출판된 후 후루시마 도시오씨의 비판을 받고나서입니다.”

원회 측의 지도자 격에 해당하는 스에히로 이즈타로는 조사 목적을 “중국사회에서 행해지는 법적 관행의 조사”로 규정한 뒤, “같은 법적 관행의 조사라 해도 일찍이 대만에서 진행된 구관조사와 같이 입법 내지 행정의 참고자료를 얻는 것이 목적이 아님을 명백하다. (중략) 중국의 민중이 어떤 관행 속에서 사회생활을 영위하고 있는가, 바꾸어 말하면 중국사회에서 행해지고 있는 관행을 밝힘으로써 그 사회의 특질을 살아있는 그대로 기록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조사의 목적”이라고 밝혔다.⁵⁸⁾ 그리고 이에 맞추어 조사 방법도 “기성의 법적 개념에 구속됨 없이 현실을 현실 그대로 그려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며,⁵⁹⁾ 실지 조사는 조사원 1명이 조수 1명을 동반하여 농민들과 직접 질의응답을 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⁶⁰⁾

이처럼 「중국농촌관행조사」는 원칙적으로는 점령지역의 지배나 통치를 위한 수단적 목적이 아니라, 사회 현실의 기록이라는 순수한 학문적 목적을 표방한 사업이었다. 사업성과에 대한 평가는 긍정과 부정 양쪽으로 명확히 나뉘었다. 아사히신문사로부터는 1952년도 아사히문화상을

57) 中國農村慣行調査刊行會編(1952), 『中國農村慣行調査』 제1권, 東京: 岩波書店, p. 1.

58) 위의 책, pp. 17-18.

59) 위의 책, p. 21.

60) 다음은 1942년 5월 13일에 河北省 靜海縣 上口子門에서 하타다가 保長 徐邦桂와 행한 면담 내용의 일부이다(滿鐵北支經濟調査所(1942), 『北支慣行調査資料之部』 제77집 概況篇 제11호, p. 1).

문: 나이는 몇 살인가? 답: 43세.

문: 언제부터 보장을 하고 있는가? 답: 29년 10월경부터.

문: 그 이전에는 촌장을 하고 있었나? 답: 한 적 없다.

문: 당신 전에도 보장이 있었는가? 답: 없었다. 내가 처음 保長이 되었다.

문: 현재 촌장은 있는가? 답: 없다.

문: 보장이 생기기 전까지는 촌장이 있었는가? 답: 있었다.

문: 촌장을 뭐라고 불렀나? 답: 村正, 鄉長.

문: 부보장도 있는가? 답: 있다.

수상하고, 문부성과 정치경제연구소로부터는 출판을 위한 장려금도 받았다.⁶¹⁾ 그러나 비판의 강도 또한 만만치 않았다. 논점은 크게 두 가지였다. 첫째는 사업의 성과가 질의응답과 같은 가공되지 않은 데이터 제공에 그쳤다는 점, 둘째는 조사 자체가 군사점령지역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이다.⁶²⁾ 특히 후자와 관련해서는 후루시마 도시오에 의해 다음과 같은 비판이 제기되었다. 즉 “순학문적(純學問的)으로 조사를 행하고 있다는 의식이 도리어 그 조사가 점령자의 일원으로 행해졌다는 점에 대한 반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어서 그는 이러한 반성의 부족이야말로 사실은 조사를 무디게 만든 원인이라고 비판하였다.⁶³⁾

처음에 하타다는 “전시 하에서 일본인이 행한 커다란 성과 중 하나”라고 자평하고 있었다.⁶⁴⁾ 1958년에 발표된 「‘중국농촌관행조사’의 간행을 끝내며」라는 글에서도 “순학술적 조사라는 자부심은 조사원의 연구의욕을 불러 일으켰다”고 말했다. 후루시마의 비판에 대해서는 일부 수긍하기도 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우리들이 순학문적 조사이기 위해 노력했고, 그에 따라 조사의욕이 고양되었다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일선을 그었다.⁶⁵⁾ 그러나 그의 회고에서 고백하

61) 旗田巍(1958), 「『中國農村慣行調査』の刊行を終って」, 『圖書』 109호, p. 26.

62) 末廣昭(2006), 앞의 논문, pp. 36-37.

63) 旗田巍(1958), 앞의 논문, p. 27에서 재인용.

64) 旗田巍(1954), 「中國農村慣行調査」, 『學術月報』 제7권 제7호, p. 23.

65) 旗田巍(1958), p. 27. 그러나 『중국농촌관행조사』 제4권의 대상 지역이었던 山東省 歷城縣 冷水溝藏을 다시 찾아 만철조사자료의 가치와 신빙성을 재검토했던 나가오 가쓰미는 전시라는 상황과 일본군 점령지라는 조사지역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조사원들은 일본군에게 입은 피해와 관련해서는 질문하지 않았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그 이유를 조사 자체가 중단될지 모른다는 조사원들의 자기규제 때문이라고 설명했는데(中生勝美(1987), 「『中國農村慣行調査』の限界と有効性 —山東省 歷城縣冷水溝藏再調査を通じて—」, 『アジア經濟』 28-6, p. 36), 이는 조사결과와의 현실적 활용을 전제하지 않더라도, 또 전황의 악화라는 직접적인 제약이 없다고 하더라도, 조사자가 처한 현실적 조건에 의해 학문적 순수함이 왜곡될 수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고 있는 것처럼,⁶⁶⁾ 후루시마의 비판은 그에게 순수 학문이란 것이 존재 가능한가라는 질문을 던져주었으며, 전술한 논문인 「만선사의 허상」은 바로 그에 대한 답을 구하려 했던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만선사의 허상」은 학문의 순수성보다는 학문과 권력 사이의 유착관계에 대부분의 지면을 할애하였다. 더욱이 하타다가 만선사의 대표적 사례로 든 이나바 이와키치는 사론을 통해 현실 문제에 적극 개입하고자 했던 인물인 까닭에, 처음부터 그를 소재로 학문의 순수성을 논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았다.⁶⁷⁾

이 문제를 보다 본격적으로 다룬 것은 1966년에 발표한 「일본의 동양사학 전통」에서였다. 이 논문의 문제의식은 1964년과 65년에 『역사평론』에 연재된 하타다의 회고담 속에서 먼저 확인된다. 여기에서 하타다는 과거와 달라진 연구 환경에 감탄과 기대를 표하면서도, A·F 문제, 즉 미국의 아시아 재단과 포드 재단에 의한 연구지원 문제를 동양사학의 위기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으로 언급하였다. 이를 둘러싼 학계의 논쟁은 이미 상당 부분 전개된 상태였지만, 하타다는 옳고 그름의 판단에 앞서 “학문과 정치의 관련성에 대한 동양사의 전통적 사고방식”을 생각하게 되었다. 하타다가 말하는 ‘동양사의 전통적 사고방식’이란, 현실과 거리 두기, 그러한 단절을 학문 성립의 요건으로까지 간주하는 연구자의 태도를 말하는 것으로,⁶⁸⁾ 이는 학문과 권력의 유착관계를 폭로하는 데 주력한 지금까지의 연구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연구자의 사회적 책임을 묻는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구체화하여 「일본의 동양사학 전통」에서는 A·F 문제가 과연 새로운 사태인가라는 질문에서부터 시작했다. 그리고

66) 각주 56번 참고.

67) 旗田巍(1969), 「『滿鮮史』の虚像 —日本の東洋史家の朝鮮館—」, 『日本人の朝鮮觀』, 東京: 勁草書房, p. 195.

68) 旗田巍(1965.3), 「東洋史學の回想(三)」, 『歴史評論』 175, p. 28.

다음과 같이 답하였다.

나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는다. 형태는 다르지만 본질적으로는 상당히 공통성을 갖는 사태를 몇 번이고 경험하고 있다. 너무나 경험을 해서 눈치 채지 못할 정도로 경험하고 있다. 우선 그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동시에 그런 경험에 당면하여 그에 어떤 불안도 느끼지 못하고 그저 당연한 것으로 간주해 온 일본 학계의 전통, 현재에도 이에 대해 반성·비판이 결핍되어 있는 학계의 전통이 문제다. 나 자신도 이런 학계에서 자란 한 사람으로서, 이번 문제를 생각함에 우리 학계의 전통을 상기하지 않을 수 없었다.⁶⁹⁾

이처럼 학문과 권력의 유착관계를 당연시 해 온 학계 전통의 기저에는 “어떤 권력과 연계되더라도 연구자 자신의 노력에 의해 연구의 순수성을 지킬 수 있다”⁷⁰⁾고 하는 확신이 있었다고 하타다는 지적한다. 일본의 동양사학은 주로 고대의 지명 및 연대 고증에 몰두해 왔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하타다는 그런 연구조차도 현대를 살아가는 연구자의 사상을 매개로 하여 현실과 연결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자가 진정 학문의 순수성을 지켜내고자 한다면 자신의 사상 자체를 지워야 한다는 불가능성에 도전해야 했는데, 하타다는 그를 실제 시도한 인물로서 중국경제사의 개척자로 평가 받는 가토 시게루를 들기도 하였다.⁷¹⁾

결과적으로 사상의 소거는 연구자들로 하여금 개개의 사실 규명에만 힘을 쏟도록 만들었으며, 그로 인해 미래를 총체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힘을 결락시켜 버렸다. 이처럼 역사의 체계적 인식을 방기한 연구자들은

69) 旗田巍(1966), 「日本における東洋史学の伝統」, 『歴史像再構成の課題』(幼方直吉・遠山茂樹・田中正俊 編), 東京: 御茶の水書房, p. 206.

70) 旗田巍(1966), 위의 논문, p. 212.

71) 旗田巍(1966), 위의 논문, pp. 213-214.

학문의 순수성을 대가로 도리어 권력과 무책임하게 결합해 갔다. 이에 하타다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졌다. “현실과 떨어져 사상을 버리는 것이 학문의 순수성·주체성을 지키고 학문의 내용을 높이는 길인가, 반대로 현실을 주시하면서 사상과 학문을 통일하는 것이 보다 올바른 방향인가.”⁷²⁾ 하타다는 후자를 선택하였다. 그를 통해서만 1960년대 당시 변혁과 해방의 소용돌이에 있던 전후 아시아의 현실과 직접 대면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4. 맺음말: ‘전후 조선사학’의 한계와 가능성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51년에 간행된 하타다 다카시의 『조선사』는 전전의 조선사학을 인간 부재의 역사라고 비판하면서, 조선인의 고뇌를 자신의 고뇌로 삼아 조선인을 주체로 한 새로운 역사, 곧 전후 조선사학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는 단순히 식민사학의 전통을 비판하기 위함이라기보다는, 과거 및 외부와의 이중적 단절 위에 성립해 있던 전후 일본이라는 공간에 그 과거이자 외부이기도 했던 조선을 재배치함으로써, 일본의 전후 공간에 균열을 야기하려 했던 하나의 실험이자 도전이었다고 생각한다.

하타다는 전후 일본사회가 타자(곧 조선)와의 대면을 회피하는 근본 원인을 일본인의 왜곡된 조선관에서 찾았고, 그것의 해체를 위해 그러한 인식이 형성된 기원까지 거슬러 올라갔다. 이를 통해 하타다는 학문과 권력 사이의 유착관계를 폭로할 수 있었으며, 나아가 권력과 분리된 순수 학문의 존재 가능성을 회의하기에 이르렀다. 순수 학문에 대한 맹신은 연구자들로 하여금 현실과 거리를 두게 만들었으나, 연구자들이 학문

72) 旗田巍(1966), 위의 논문, p. 217.

으로부터 사상을 소거해 버리는 통에 역설적이게도 학문과 권력 사이의 무책임한 결합을 초래하고 말았다는 것이 하타다의 분석이다. 하타다는 그를 방지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으로서 학문과 사상의 통일을 제시하였다. 이야말로 학문에 갇힌 연구자가 다시금 현실과 대면할 수 있는 통로이자 총체적 미래를 전망할 수 있는 출발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타다가 역사의 주체로 내세웠던 ‘(조선)민족’은 그것의 초역사적 성격으로 인해 전전의 황국사관에 근거한 ‘(일본)민족’이나 전후의 가해책임을 지워버린 ‘(일본)민족’과도 혼동되기 쉬웠고, 조선인과의 공감 가능성은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또한 자기 자신이 가해자의 일원이기도 했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의심받았다. 그리고 아카데미즘의 공고한 벽은 조선사학사에서 조선인 부재의 상황을 초래하기도 했다.⁷³⁾ 어찌면 단순히 차별 발언이라는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이와 같은 여러 제한들이 그를 총체적인 반성으로 이끌었던 것인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실증주의와 포스트모더니즘의 공모 속에 제기되는 하타다 비판은 재고의 필요성을 느낀다. 실증주의는 언제나처럼 실증의 부족을 문제 삼아 하타다의 입론을 해체하려 들고 있지만, 만선사 재론의 현재적 맥락에 무관심한 실증주의야말로 전전의 학문적 전통을 계승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또한 그와 공고히 결합해 있는 탈근대적 논의는 이미 유행이 한참 지나버린 초역사적 존재로서의 ‘민족’을 소거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민족’이 담아내고 있던 저항의 역사 자체, 그리고 사회와 맞서고자 하는 역사가의 현실의식마저 지워버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최근 한국에서는 식민사학을 비판하면서도 사실은 그를 거울로 삼아 성립한 근대 한국사학의 성격을 폭로하면서 ‘식민주의 역사학’이라는 명명을 통해 근대 역사학에 대한 메타비판의 가능성을 찾고자 하는 노력들

73) 미쓰이 다카시(2011), 「전후 일본에서의 조선사학의 개시와 史學史像」, 『한국사연구』 153, 제3장 참고.

이 시도되고 있다.⁷⁴⁾ 역사인식의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되고 있는 지금, 우리는 하타다를 어떻게 다시 읽어내야 할 것인가.

하타다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 자신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침략적 연구체제 속에서 자랐다. 지금 생각하면 그것이 나의 연구 내용에 커다란 왜곡을 남긴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를 반복하고 싶지 않다”고.⁷⁵⁾ 하타다의 전후 조선사학의 가능성은 사후적으로 평가된 한계들에서가 아니라, 하타다 스스로가 극복하려 했으나 극복되지 못한 임계의 지점에서, 달리 말하면 위와 같은 ‘반복’의 사실을 끊어낼 수 있는 지점에서부터 탐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것은 역사가의 신체성을 받아들이고 스스로를 대상화하는 과정에서야 가능할 것이다.⁷⁶⁾

74) 한양대학교 비교역사문화연구소 기획/윤해동·이성시 엮음(2016), 『식민주의 역사학과 제국 —탈식민주의 역사학 연구를 위하여—』, 서울: 책과 함께의 총론 격에 해당하는 윤해동의 「식민주의 역사학 연구 시론」 참고.

75) 旗田巍(1966), 앞의 논문, p. 225.

76) 磯前順一(2010), 앞의 논문, p. 61.

참고문헌

- 고길희(2005), 『하타다 다카시』, 서울: 지식산업사.
- 磯前順一(2010), 「石母田正と敗北の思考 —1950年代における轉回をめぐって—」, 『戦後知の可能性 —歴史・宗教・民衆—』(安丸良夫・喜安朗編), 東京: 山川出版社.
- 旗田巍(1992), 「新しい朝鮮史像をもとめて」, 『新しい朝鮮史像をもとめて』, 東京: 大和書房.
- _____ (1983), 「朝鮮史を學ぶために」, 『朝鮮と日本人』, 東京: 勁草書房.
- _____ (1978), 「朝鮮史研究をかえりみて」, 『朝鮮史研究會論文集』 15.
- _____ (1976), 「朝鮮史學を貫いたもの」, 『アジア』 1976년 8・9월호 함병호.
- _____ (1969), 『日本人の朝鮮觀』, 東京: 勁草書店.
- _____ (1969), 「差別發言問題と私の反省」, 『朝鮮研究』 87.
- _____ (1966), 「日本における東洋史學の伝統」, 『歴史像再構成の課題』(幼方直吉・遠山茂樹・田中正俊 編), 東京: 御茶の水書房.
- _____ (1965.1), 「東洋史學の回想(二)」, 『歴史評論』 173.
- _____ (1965.3), 「東洋史學の回想(三)」, 『歴史評論』 175.
- _____ (1958), 「中國農村慣行調査の刊行を終って」, 『圖書』 109호.
- _____ (1951), 『朝鮮史』, 東京: 岩波書店.
- _____ (1951), 「古代における民族の問題」, 『歴史學研究』 153호.
- 旗田巍 외(1964), 「(座談會)朝鮮研究の現状と課題」, 『東洋文化』 36.
- 旗田巍先生追悼集刊行會(代表 矢澤康祐)(1995), 『追悼 旗田巍先生』, 東京: Pワード.
- 나카노 도시오(2013), 「'전후 일본'에 저항하는 전후사상」, 『'전후'의 탄생 —일본, 그리고 '조선'이라는 경계—』(성공회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기획/권혁태·차승기 엮음), 서울: 그린비.
- 다키자와 노리오키(2003), 「이나바 이와키치와 '만선사」, 『한일관계사연구』 19.
- 滿鐵北支經濟調査所(1942), 『北支慣行調査資料之部』 제77집 概況篇 제11호.
- 末廣昭(2006), 「アジア調査の系譜」, 『岩波講座 '帝國'日本の學知』 제6권 地域研究としてのアジア(末廣昭 責任編集), 東京: 岩波書店.
- 末松保和・周藤吉之・山邊健太郎(1952), 「旗田巍著 『朝鮮史』」, 『歴史學研

- 究』156.
- 毛利英介(2015), 「滿洲史と東北史のあいだ—稲葉岩吉と金毓黻の交流より—」, 『關西大學東西學術研究所紀要』48.
- 미쓰이 다카시(2011), 「전후 일본에서의 조선사학의 개시와 史學史像」, 『한국사연구』153.
- 寺内威太郎(2004), 「‘滿鮮史’研究と稲葉岩吉」, 『植民地主義と歴史學: そのまなざしが残したもの』, 東京: 邊水書房.
- 小林英夫(2015), 『滿鐵調査部』, 東京: 講談社.
- 안종철(2013), 「주일대사 에드윈 라이샤워의 ‘근대화론’과 한국사 인식」, 『역사문제연구』29.
- 櫻澤亞伊(2007), 「‘滿鮮史觀’의再檢討—‘滿鮮歷史地理調査部’と稲葉岩吉を中心に—」, 『現代社會文化研究』37.
- 歴史學研究會編(1993), 『戰後歴史學と歴研のあゆみ』, 東京: 青木書店.
- (1951), 『歴史における民族の問題—1951年度歴史學研究會大會報告』, 東京: 岩波書店.
- 日本朝鮮研究所 運營委員會(1969), 「本誌差別發言問題の経過と私たちの伴性」, 『朝鮮研究』87.
- 長森美信(2010), 「戰後日本における朝鮮中近世史研究—1970年代までの高麗・朝鮮時代史研究を中心に—」, 『朝鮮史研究會論文集』48.
- 田中隆一(1996), 「對立と統合の鮮滿關係—‘內鮮一體’・‘五族協和’・‘鮮滿一如’の諸相」, 『ヒストリア』152.
- 井上直樹(2013), 『帝國日本と‘滿鮮史’—大陸政策と朝鮮・滿洲認識—』, 東京: 塙書房.
- 中國農村慣行調査刊行會編(1952), 『中國農村慣行調査』제1권, 東京: 岩波書店.
- 中生勝美(1987), 「『中國農村慣行調査』の限界と有効性—山東省歷城縣冷水溝藏再調査を通じて—」, 『アジア經濟』28-6.
- 천관우(1952), 「旗田巍著 朝鮮史」, 『역사학보』1.
- 한양대학교 비교역사문화연구소 기획/윤해동·이성시 엮음(2016), 『식민주의 역사학과 제국—탈식민주의 역사학 연구를 위하여—』, 서울: 책과 함께.

원고 접수일: 2017년 10월 18일

심사 완료일: 2017년 10월 31일

게재 확정일: 2017년 11월 1일

Abstract

Hatada Takashi's Studies of Korean History in "Postwar" Japan

Park, Junhyung*

This article reviews Hatada Takashi's studies of Korean history in the context of "Postwar" Japan. His first book *Korean History*, was published in 1951, when the Korean Peninsula was embroiled in war. In his book, Hatada criticized studies on Korean history from the "Prewar" era for not considering "human presence," and insisted on a new historical description centered on the Korean Nation. He urged the "Postwar" Japanese society that forgot about Japan's colonial responsibility to acknowledge its victims beyond national borders. Furthermore, Hatada revealed the relationship between academia and power, and questioned if academics can exist apart from reality. Because the scholars of the "Prewar" era abandoned their thoughts for the goal of protecting academic purity, which only nurtured an irresponsible attitude that could combine with any form of power. Finally, Hatada asserted unification between thought and academics, and attempted to raise social responsibility among scholars by bringing them back to reality. Although Hatada's studies were not only confused with exclusive nationalism, but also suspected of expressing empathy with Korean people, his thought process above will enable a reevaluation of his studies.

*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Korean History, University of Seoul